

전기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의 신제품 소개 및 신기술 동향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 안전성이 뛰어난 누전차단기형 가로등접속함 MTC-3N 대용량, 고성능의 듀얼도어 가로등분전함 '에이스로'



MTC-3N

1993년 수배전반 기업으로 첫발을 내딛은 두리계전(대표이사 이기관)은 현재 가로등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의 도시 가로 조명시스템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온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두리계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로등용 분전함은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정립되기 이전부터 분전함에 디자인의 개념을 담아 지금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인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로등용 분전함 기업이다.

지난 2003·2005·2010년에는 GD(우수산업디자인) 인증도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로등용 분전함 브랜드(에이스로, 네오스, 나누미 등) 보유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멀티콘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가로등접속함의 역사는 두리계전에 의해 처음 쓰여졌다. 10여 년 전 처음 발명되어 현재 도시의 전기안전을 지키는 대명사가 된 멀티콘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켜온 제품이다. 멀티콘은 그 쓰임새에 따라 누전차단기형, 자동복구형, 방수접속형, 바이패스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가로등 설계 특성에 최적화된 제품구성으로 지난 십여년 간 여러 공공기관의 사랑을 받아왔다.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항상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두리계전이 오랜 시간 축적한 옥외전기 시설물에 대한 노하우야말로 멀티콘 브랜드의 핵심 가치입니다.”라고 품질경영팀 이재오 과장은 말한다.

하지만 두리계전의 분전함과 접속함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은 전기안전기기의 모습 뿐만은 아니다. 가로조명산업도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LED, SMART 이 두 단어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고, 분전함과 접속함도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디밍, PLC통신 등의 부가기능이 가미된 멀티콘은 전기안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담은 제품이 될 것이고, 저압 DC그리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연구소장 임정구 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할 두리계전의 과제이다. “전기안전은 전기가 사용되는 지구상 모든 곳의 니즈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영업에 담당하는 이기관 부장은 자신 있게 말한다. 실제로 제조상의 국제적 기준인 RoHS를 준수하면서 해외시장의 문을 열어갈 계획이며, 수차례 진행된 해외전시회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두리계전은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첫 번째 타겟으로 하여 세계시장 공략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KEA



에이스로